

간장·된장·토하 ... 전통의 맛 빛는 장인들의 삶과 열정

명인명촌

한정원 지음



“나도 전통의 맛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죠. 하지만 확실한 건 전통의 맛은 건강한 음식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맛 말입니다.” (본문 중에서)

요즘 TV 프로는 요리가 대체다. 대부분의 채널을 점령할 정도로 음식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 몇 해 전부터 불어닥친 먹거리 열풍은 쿡방(cook+방송)의 대체로 이어졌다. 채널을 돌리면 요리 실력과 예능감을 갖춘 셰프들이 나와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물론 이들의 인기는 잘나가는 연예인 못지않다.

그 뿐인가. 블로그와 포털 사이트에는 요리 고수들의 레시피와 맛집 소개 정보가 넘친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음식을 배워준다는 광고 또한 수시로



우리의 맛을 빛는 장인들은 이 땅에서 얻은 귀한 식재료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깨끗한 물·공기·좋은 식재료
자연에 순응하며 기다리고
정성 담겨야 건강한 맛 나와**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 보면 이런 음식 열풍은 패스트 푸드 범람과 무관치 않다. 그 사이 우리의 눈과 혀는 즐거울지 몰라도 부지불식간에 건강을 잃기

쉽사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은 정직한 먹을거리의 부재를 방증한다.

엄밀히 말해 한 끼 밥상에는 생명과 시간이 차려진다. 우리가 먹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화려한 음식 이야기가 넘치고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진정한 먹을거리의 가치를 고민하는 책이 출간됐다. ‘지식인의 서재’로 유명한 방송작가 출신 한정원 씨가 펴낸 ‘명인명촌-우리의 맛을 빛는 장인들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얻은 귀한 식재료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의 삶과 열정에 초점을 맞춘다.



〈컬처 그라피 제공〉

저자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다리컨설팅 정두철 대표와의 만남이었다. 정 대표는 전국의 숨겨진 장인들을 찾아내 지역 특산품을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입히는 ‘명인명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에게서 우리 맛을 지키는 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자는 그들의 삶과 철학에 매료되었다.

“정성이 기본인 거죠. 이젠 진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좋은 소금, 유약을 바르지 않은 숯쉬는 독, 건강한 콩, 따사로운 햇살, 그리고 좋은 균과 만드는 이의 숨쉬기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은 정성 없는 얻을 수 없는 거지요. 정성은 당연한 겁니다.”

‘간장의 명인’ 정두와 응의 둘째 며느리 성명희 씨의 말이다. 정두와 응은 말표산업 창업주로 일선에서 물러난 후, 전통 맛을 복원하기 위해 여생을 바쳤던 인물이다.

이밖에 저자가 만난 명인들의 면모는 다양하다. 직접 농사지는 깨로 기름을 짜내는 언론인 출신 농부, 집념 하나로 토하를 살려낸 군 의원, 발효의 세계에 빠져 온 마음을 다해 식초를 만드는 시인이 이르기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명인들을 만나 얻은 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값비싼 식재료나 특별한 비법 같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이의 품성과 정성이다. 주어진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맛을 빛어낸다는 자부심에서 연유한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기다림’이다. “자연의 순리에 따른 기다림을 품은 맛, 사람을 생각하는 정성을 담은 맛, 그것이 바로 건강한 맛이다. 건강한 맛은 기다림에서 온다.”

마지막으로 간장의 명인 정두와 응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장독에 적어 놓은 글귀를 소개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한번쯤 곱씹어봐야 할 문구다. “아내는 자식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남편도 키우는 거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몸가짐을 잘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가짐을 잘해야 한다.”

〈컬처그라피·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저출산·고령화 등 문제의식 공유 시급



대한민국 국가미래 전략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지음

2045년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30년의 시간은 한 세대를 구분하는 준거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함축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카이스트(KAIST) 최고의 석학들이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이번에 출간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은 처음 민간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정파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생

각하자한다는 일념에서 도출한 결과물이다. 책에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한 36회의 토론회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 있다. 이들은 각 분야별 미래전략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문제의식의 공유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모두 6가지 절대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통합’ ‘갈등해결’ ‘평화(통일)와 국제정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어느 것 하나도 녹록하지 않다. 성장잠재력은 둔화되고 있으며 GDP성장률은 내리막길에 있다. 그럼에도 작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정지권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미래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와 개인이 상호 공존하는 사회’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국가’ ‘국제정치와 평화외교의 허브’ ‘자원빈국에서 자원보유국’ 등을 들 수 있다. <이근·2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증오 가득한 세상에 평화와 치유 메시지



테러리스트의 아들

책 이브라힘 지음

명쾌하면서도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며 세계적 화제가 되어온 테드(TED)의 명강연을 책으로 만나본다. 테드가 직접 엄선한 최고의 강연들을 보완하고 확장한 테드북스 시리즈를 통해서다.

첫번째 시리즈 ‘테러리스트의 아들’은 증오로 가

득한 세상에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인 책 이브라힘은 테러리스트의 아들이다. 아버지 엘사이드 노사이르의 테러 행위로 인해 그의 어린 시절은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졌다. 책은 책을 통해 테러리스트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까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담담하게 되짚는다. 건축가 마크 쿠시너가 쓴 ‘미래의 건축 100’은 지구 각지의 건축물의 모습을 시원하게 담은 도판으로 채워져 있다. 과학적인 틀이 아닌 작가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100여개의 프로젝트에 전세계 모든 대륙과 갖가지 건축 종류가 포함된다. <문학동네·각 권 1만2000원, 1만3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헤세 문학의 정수 오롯이 담긴 산문집



헤세가 사랑한 순간들

헤르만 헤세 지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고 자 하는 자는 한 세계를 부셔야 한다.” 독일이 자랑하는 노벨문학상 작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문장이다. 소설이 아닌 그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산문집이 출간됐다. 소설가 배수아가 번역하고 엮어낸 ‘헤세가 사랑한 순간들’에는 헤세의 빼어난 산문들이 수록돼 있다. 산문집에는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글들, 작품 이면에 감춰진 작가를 알 수 있는 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헤세의 특질이 투영된 ‘나무’, ‘농가’, ‘마을’의 작품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감동적인 효과를 준다. <유유문화사·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33년 외교관 생활 총결산



크리스토퍼 힐 회고록

크리스토퍼 힐 지음

“나는 용감했던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크나큰 존경심과 슬픔을 안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늘 기억되고, 이들에 대한 기억이 늘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길 기원합니다.” 2004년 9월 부임한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로는 최초로 광주 5·18묘역을 참배하고 글을 남겼다. 당시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등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되던 즈음에 부임한 그는 기존 대사들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가 펴낸 ‘크리스토퍼 힐 회고록-미국 외교의 최전선’은 33년 외교관 생활의 총결산이자 미국 외교사의 초상이다. <메디치미디어·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10월 광산구 '문화가 있는 날' 특집

광산인문학콘서트

강신주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펼 수 있는가?
: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

2015. 10. 28(수) 저녁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강트리오 Kang Trio
강혜경(가야금)
강철성(색소폰)
강세련(첼로)

“좋은 사회는 사랑하는 것을 보장하고, 나쁜 사회는 사랑이 아니라 경쟁을 조장해요. 사랑을 하면 자유를 알아요. 힘들다는 이유로 사랑과 자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게 중요해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때 다시 강해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 SBS <힐링캠프> 중에서

사전예약 필수 10.14~23
선착순 400명(광산구 홈페이지 '새소식') / 12세 이상
문의 광산구 문화기획팀(062-960-8253)

무료강연 & 감동후불제
강연 후 받은 감동과 재미만큼 관람료 지불-소외계층 기부

카페 드 광산 Cafe de Gwangsan 10, 28(수) 18:00 로비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책, 필요한 곳에 기부합니다.
강연장에 가져오시면 향긋한 커피+책갈피로 교환해드립니다.
* 2010년 이후 발간된 깔끔한 도서(잡지, 단체 홍보물 등 제외)

주최 후원